

“좋은 찬불가 한 곡
기도와 법문 못지않게
어린이 포교에
중요한 역할해요”

그럴 때면 화두인 '이웃'을 잡고 참선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가장 보람있었던 기억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어린 시절 불교 포교에 대한 이해가 적어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가장 보람있었던 기억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나는 평생동안 이곳 운문사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 주지 소임을 맡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찬불가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불교 포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스님이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모습이 신도들에게 별로 바람직하게 비치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나는 돈이 생기면 사찰 불사보다도 곡을 만드는 데 온 전력을 쏟았기 때문에 신도들과 스님들의 불만이 많았지요. 그래서 내 스스로 주지직을 그만두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면 혼자 외로운 고행을 하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찬불가 제작을 중단하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불교성전을 펴낼 때 많은 도움을 받은 불화가 석정스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러 김해 포교당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포교원 앞마당에서 내가 만든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부르는 노래를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자 어린이회 시간엔 스님이 가르쳐 주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펴낸 불교성전 말미에 목표에서 만들었던 '경배하세' '관세음보살의 노래' 등 10여 곡을 첨가했는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자 재미있게 배우더라고요. 또 한 번은 진주 연화사 주지로

있을 때 고무줄 놀이를 하는 애들을 보고 고무줄 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를 불교 노래로 만들어 오면 상을 준다고 하자 '어린이회'와 '우리절 종소리' 두 곡을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듬어서 아이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한 번은 진주 시내에 불일이 있어 나갔다가 '우리절 종소리'를 부르며 고무줄놀이 하는 애들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우리절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거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노래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니 연화사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배웠다고 하더군요. 그때 내가 찬불가 만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곡의 좋은 찬불가를 만드는 것이 기도나 법문 못지않게 어린이 포교에 중요한 불사란 걸 깨닫고 다시 용기를 냈지요.

그 때 골목에서 찬불동요를 부르던 어린 아이들이 커서 '마하보리함창단'과 '불교방송 합창단' 등 여러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경이감을 느낍니다. 현재로서는 어린이 포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김해포교당과 연화사에서 즐겁게 노래 부르며 뛰놀던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 잡았지요. 또 사바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은 마음이 앞장서 일어난 것이고 마음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본 마음 자리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찬불가는 관대무변한 부처님의 진리가 녹아 있다는 점에서 어떤 법문 못지않게 우리 불자들에게 중요한 메시

“노래로 배우는 교리 이해 쉽고
찬불가 부르다보면 신심 절로”

지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찬불가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까?

▲불경만 가지고는 불교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바꾼 찬불가를 지루 그 의미를 되새기며 부르다보면 불경을 독경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불가 그 자체가 부처님 말씀이 들어 있는 경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찬불가는 무대나 법당에서 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불러줘야 합니다.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면 일반 대중가와와는 달리 항상 부처님의 품안에서 부처님과 함께 있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 일반 노래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찬불가를 부를 때도 기도나 참선하는 마음가짐으로 신심을 내서 부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도나 참선만이 수행 생활의 전



◇찬불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생활속에서 실천 수행하는 것도 기도나 열불 못지않은 중요한 수행방편이라고 강조하시는 운문스님.

기면서 불러야겠습니다.

▲물론이지요. 단순히 찬불가를 부르는 것은 물론 수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찬불가 내용을 음미하면서 생활속에서 철저하게 실천한다면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나도 경전을 인용한 찬불가를 만들면서 몇 번이고 다시금 내용을 되새기며 행동에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포교를 하면 보지 않았던 아무리 좋은 글귀를 많이 위외도 익힐 수 있고 훌륭한 것이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찬불가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몸소 실천하지 않는다면 일반 가요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또 찬불가를 부를 때도 웅장진하는 마음가짐으로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른다면 참선할 때처럼 선정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이 차분해 지고 법열과 발심이 생겨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경전을 음미하며 독경하듯이 찬불가를 부르면서 그 메시지를 생활속에서 꾸준히 실천 수행 한다면 기도나 열불 못지않게 좋은 수행의 방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담=김주임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허주스님의
스님이야기
고승 노스님

팔공산 파계사(把溪寺) 내원(內院)에 주석하고 계시는 고승(古松)노스님은 내 마음속의 영원한 선지식이다. 스님은 봉은사에서 당시(1925년경) 조실로 계셨던 방한암(方漢岩) 큰 스님을 만나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아 세수가 95세(법랍 78세)인 지금까지 한평생 선림(禪林)에 계신다.

한암스님 법맥 이어받아
한평생 禪林에 계신다

한암스님은 봉은사 대래현(현재의 봉은선원)에서 몇 철 안거를 보낸 후 "차라리 천교에 자취를 감추는 것이 필자언정 삼춘(三春)에 잘 잡히는 앵무새는 되지 않겠다"고 하시고는 홀연히 상원사 종대암으로 들어가셔서 단 한번도 산문 출입을 하지 않고 오대산에서 입적하셨다. 봉은사에서의 인연으로 한암스님의 법제자가 된 스님은 내가 대래현에서 조실하신 석주노스님을 모실 적에 가끔 들르셔서 한암스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 조실스님과 함께 금강산 마하연에서 함께 정진하시던 말씀을 나눌 때 두 분이 그렇게 정겨워 보일 수가 없었다. 몇 년전 병상에 계신 스님을 찾아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쳐 꼼꼼히 일어나지 못했다.

“늙지도 못하고 많이 힘드시죠”라고 문안 드리니 첫 말씀이, “병원에 있으니 왜 이리 시

간이 잘가노” 하신다. 나도 척추를 다쳐 며칠 병상에 누워 있었으니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던지 평소엔 며칠이고 잠이나 쪽 잤으면 좋겠다는 꿈은 하루만에 깨어졌었다. 이불짜가 되자 왜 그리 시간이 지루하고 힘이 드는지 등짝이 배고고 몸이 꼬여 입원기간의 절반을 담당해 퇴원했던 적이 있다. 90이 넘는 노구에 그것도 누워있는 시간보다 일드려 있어야 하는 병세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너무 잘 간다. 금새 아침이고 저녁이니 큰일났다”라니, 내 속을 কে떡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스님의 느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다.

“늙지도 못하고 많이 힘드시죠”라고 문안 드리니 첫 말씀이, “병원에 있으니 왜 이리 시

골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면 누가 믿나.” 젊은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몸이 신경을 쓰면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은 법이다. 그런데 스님은 좋은 음식보다는 부지런히 움직이므로서 건강을 유지하신다. 그런 모습에서 스님의 철저한 수행생활을 엿볼 수 있다. 노인이 너무 몸에 연연하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나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지극히 평범한 이치를 보여 주시더라도 하듯 아침운동은 예나 지금이나 거르는 법이 없다. 환화공신(幻化空身)이 법신이라 했건가. 이 몸통이가 비록 현재는 고통 덩어리라고 반뇌 덩어리이지만 또한 이 몸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저 중국의 영가스님 말씀처럼 젊은 사람보다도 더 부지런히 철저히 운동을 하시는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탄허스님께서 지병으로 입원해 계실 때 병문안을 가서서 누워 계신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림·문병성

“아! 이 사람이 부처 되겠다고 온 사람이여 기 이렇게 누워있으려고 절에 왔다. 어서 일어나서 부처 찾아와라.” 하시면서 많이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전에 함께 했던 주변 노스님들의 입적 소식을 들으면 거침없는 활구를 쏟아놓으시고는 이내 쓸쓸한 어깨를 추스리신다.

세상이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고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불교도 앞으로 많이 변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그래 요즘 사람들 다 석사고 박사야. 모두 똑똑해. 이 늙은이가 말하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하네 하겠지만 그러나 잘못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때 먹던 밥을 지금도 그대로 먹고 있다는 거야. 저 계곡 물 흘러가는 소리는 변하지 않았어. 우리 본래자성은 불변인 게야.” 하신다. 판매 신경쓰지 말고 먼저 자신을 위한 공부 먼저 마치고 남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설명하라 하신다. 생전에 계실 때 사진이라도 제대로 남겨 놓으려고 간혹 카메라를 뽐스님 앞에서 꺼낼 때가 있다. 그럴때면 이 늙은이 필 찍을게 있다고 하시면서 남의 얼굴찍지 말고 네 얼굴이나 올바르게 찍으라고 하신다. 손주 상좌를 하는 것이 늘 철없는 짓으로만 보이는가 보다.

다음호부터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가 연재됩니다.

Advertisement for Buddhist books. It features a grid of book covers and titles such as '영가천도' (Eungga Cheondo), '지장신앙·지장기도법' (Jijang Shinang · Jijang Gido Beop), and '불교신앙의 주춧돌' (Bulgyo Shinang-ui Jujitdol). Each book entry includes a brief description and the price. The books are published by 'Doseon Chulpansa' (도서출판 오림).